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26-2호)

# 여론속의 여輿론論

[2025 젠더인식조사]

우리 사회 젠더갈등 심각성 인식과 성차별 경험

2025. 4. 23.

담당자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 운영책임

## 이동한 팀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 연구진

##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 저작권 정책

---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러두기

---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1

## 우리 사회 젠더갈등,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 사회 젠더갈등 심각하다 57%, 작년 대비 7%포인트 감소

2022년 이후 젠더갈등 심각성 인식 감소 추이나, 여전히 과반이 심각하다고 인식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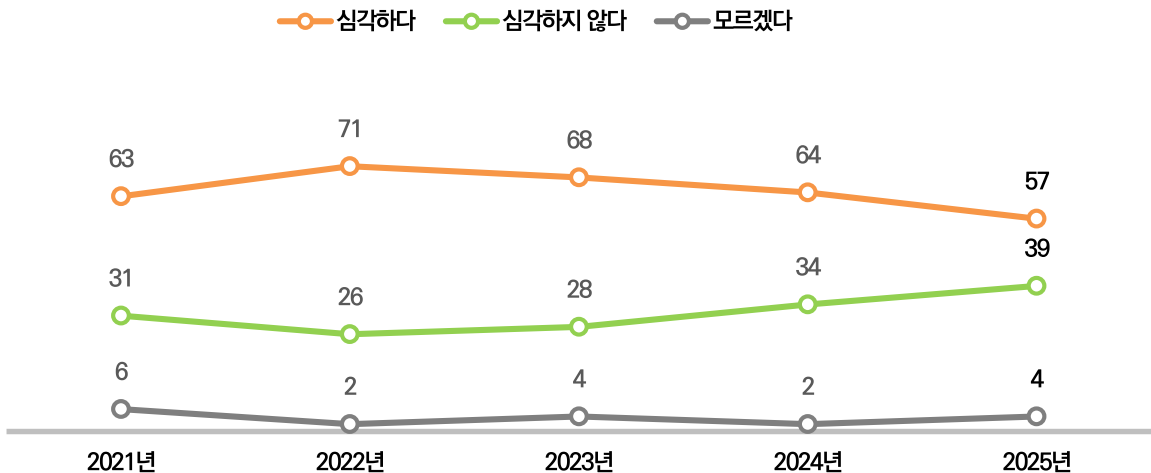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젠더'를 주제로 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차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성 고정관념 인식과 소통 평가'](#)로, 성별 간 소통의 어려움이나 성 고정관념 문제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성별과 세대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이어서 2차 보고서는 '우리 사회 젠더갈등 심각성과 차별 경험'을 주제로 한다.

10명 중 5명(57%) 이상은 우리 사회의 젠더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한다. 이는 전년 대비 7%포인트 하락한 수치(2024년 64%→2025년 57%)이지만, 여전히 과반이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응답자 중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13%, '대체로 심각하다'는 44%이다. 반면, '전혀 심각하지 않다(1%)'와 '별로 심각하지 않다(38%)'는 인식을 모두 합하면 39%이다.

젠더갈등에 관한 인식 조사는 2021년 2월부터 매년 실시해, 이번이 다섯 번째 조사다. 2022년에 '심각하다'는 응답이 71%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로는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반이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향후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이후 우리 사회 젠더갈등 심각성은 하락 추이  
그럼에도 올해도 과반이 '젠더갈등 심각하다'는 인식

(단위 : %)



질문: 우리 사회의 남녀갈등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심각하다(매우+대체로), 심각하지 않다(전혀+별로) 응답 제한함.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1년부터 매년 2월 조사(총 5회)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젠더갈등 인식, 2030세대에서 가장 높고 고령층에서 가장 낮아 40대 이하 남녀, 젠더갈등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나 전년 대비 인식 완화

남녀와 50대 이하 모든 세대에서 젠더갈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2030세대에서 젠더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75% 이상으로 전 세대 중 가장 높다. 반면, 60대 이상은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이 다수이다(심각하지 않다: 60대 53%, 70세 이상 64%).

성별과 연령을 교차해서 살펴보면 18-29세 남녀는 각각 39%, 35%가 젠더갈등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한다. 이는 젠더갈등의 핵심 당사자 세대인 청년층이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40대 이하의 남녀를 불문하고 젠더갈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특히 세대가 낮아질수록 심각성 인식은 높아진다. 18-29세 여성은 83%, 동년배 남성은 81%가 젠더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매우+대체로).

다만 긍정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40대 이하에서 남녀 모두 전반적으로 심각성 인식이 완화되는 모습이다. 3040세대 여성은 각각 12%포인트 감소했다(30대 여성 85%→73%, 40대 여성 64%→52%). 이번 조사에서 청년과 중년 세대는 남녀 모두가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다만 그 심각성 인식이 점차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인식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 18-29세 남녀, 우리 사회 젠더갈등 ‘매우 심각해’ 35% 이상 3040세대 여성, 전년 대비 젠더갈등 심각성 인식 12%포인트 하락

(단위 : %)

		'25년 젠더갈등 심각성 인식		젠더갈등 심각하다 (매우+대체로)		
		매우 심각하다	대체로 심각하다	'24년	'25년	차이(%p) ( '25년-'24년)
전체		13	44	64	57	-7
성별	남성	15	46	65	60	-5
	여성	11	42	63	53	-10
연령	18-29세	37	45	87	82	-5
	30대	21	54	83	75	-8
	40대	11	49	66	60	-6
	50대	7	46	53	52	-1
	60대	4	40	42	44	+2
	70세 이상	1	29	57	30	-27
	70세 이상	1	29	57	30	-27
성별x연령	남성_18-29세	39	42	89	81	-8
	여성_18-29세	35	49	84	83	-1
	남성_30대	22	54	81	76	-5
	여성_30대	19	54	85	73	-12
	남성_40대	14	54	68	68	0
	여성_40대	8	44	64	52	-12
	남성_50대	5	42	55	47	-8
	여성_50대	8	49	51	58	+7
	남성_60대	5	45	41	50	+9
	여성_60대	4	34	43	38	-5
	남성_70세 이상	3	36	55	39	-16
	여성_70세 이상	0	24	58	24	-34

질문: 우리 사회의 남녀갈등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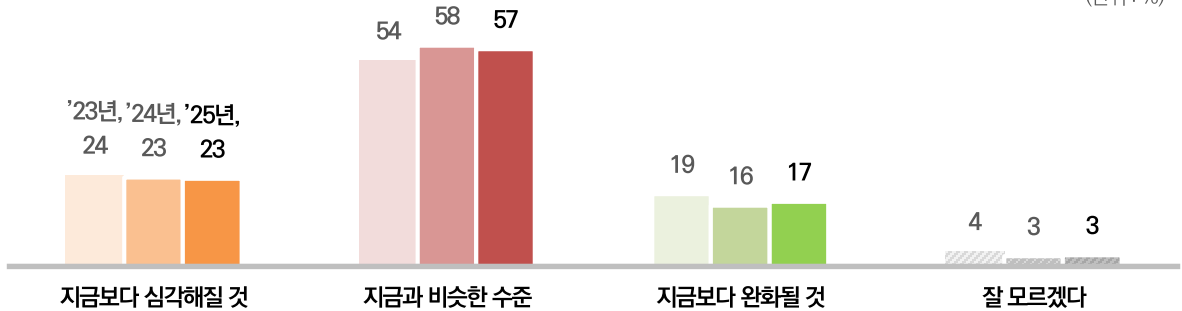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4. 2. 23. ~ 26. // 2025. 2. 21. ~ 24

**젠더갈등 현주소****현재 '심각한 수준'이고 향후에는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심해질' 것**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사회의 젠더갈등은 '심각하다'는 인식이 우세하다. 부정 인식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다수는 우리 사회의 젠더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인식이다. 향후 전망 역시 밝지 않다. 젠더갈등이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이 57%이고 '지금보다 심각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23%로, 전체의 80%가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반면,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은 17%에 그친다.

**향후 젠더갈등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57%)'이거나, '지금보다 심각해질 것(23%)'  
5명 중 4명, 우리 사회 젠더갈등 전망 비관적**

(단위 : %)



질문: 앞으로 우리 사회의 남녀갈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3. 2. 24. ~ 27. // 2024. 2. 23. ~ 26. // 2025. 2.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on.co.kr)

**'젠더갈등 유지' 및 '심화' 50%, '갈등 수준 낮고', 전망도 '지금과 비슷' 27%**

현재 젠더갈등 심각성 정도와 향후 전망을 교차 분석한 결과, 젠더갈등의 변화 양상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10명 중 3명은 현재 젠더갈등이 '심각'하고 '앞으로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갈등 유지' 인식이다(29%). 여기에 현재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고 전망 역시 '심각해질 것'이라는 '갈등 심화(21%)' 인식까지 더하면, 전체 응답자 중 절반 가량이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비관적으로 바라본다. 반면 현재 젠더갈등이 '심각하지 않'고 미래에도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갈등 없음 유지' 응답도 27%로 낮지 않다. 현재 문제가 '심각'하지만 미래에는 '완화될 것'이라는 '갈등 완화' 응답은 6%에 그친다.

**2명 중 1명, 현재 젠더갈등은 심각한 수준이고 향후 전망도 비관적**

(단위 : %)



질문: 앞으로 우리 사회의 남녀갈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2.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on.co.kr)

## 2030세대 남녀가 생각하는 젠더갈등, 현재와 미래 모두 비관적 특히 2030세대는 ‘갈등 심화’ 인식 더 강해

30대 이하 세대에서는 다수가 젠더갈등이 유지되거나 심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다. 특히 18-29세는 현재와 미래를 모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세대로 ‘갈등 유지’ 응답이 36%, ‘갈등 심화’ 응답이 40%이다.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현재 젠더갈등이 심각하지 않고 앞으로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갈등 없음 유지’ 인식이 40%를 넘는다.

젠더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2030세대는 우리 사회의 젠더 이슈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한다. 현재도, 미래도 부정적인 평가이다. 같은 세대라도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가 감지된다. 2030세대 남성은 ‘갈등 유지’ 인식이, 동년배 여성은 ‘갈등 심화’ 인식이 동년배 남성보다 높아 청년층 여성의 시선으로 보는 우리 사회는 더욱 비관적이다.

2030세대 여성은 ‘젠더갈등 심화’, 2030세대 남성은 ‘젠더갈등 유지’ 인식 상대적으로 높아  
60세 이상은 젠더갈등을 문제로 보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인식

(단위 : %)

사례수 (명)		갈등 유지 (현재 심각 &전망 비슷)	갈등 없음 유지 (현재 심각 하지 않음& 전망 비슷)	갈등 심화 (현재 심각 &전망 심각)	갈등 완화 (현재 심각 &전망 완화)	갈등 없음 강화 (현재 심각 하지 않음& 전망 완화)	갈등 조성 (현재 심각 하지 않음& 전망 심각)	모름	계
전체	(1,000)	29	27	21	6	5	1	10	100
성별									
	남성 (493)	32	25	23	5	4	2	9	100
	여성 (507)	26	28	19	7	7	1	12	100
연령									
	18-29세 (155)	36	8	40	6	3	2	6	100
	30대 (149)	37	17	32	5	5	1	4	100
	40대 (175)	30	22	24	5	9	1	10	100
	50대 (195)	30	27	15	8	5	2	14	100
	60대 (177)	22	41	13	9	4	1	11	100
	70세 이상 (149)	19	43	6	4	7	3	18	100
성별x연령									
	남성_18-29세 (81)	40	5	36	4	4	2	9	100
	여성_18-29세 (74)	32	12	45	7	1	1	1	100
	남성_30대 (77)	41	16	27	6	4	1	4	100
	여성_30대 (72)	33	18	36	4	5	0	4	100
	남성_40대 (88)	35	18	33	0	2	1	11	100
	여성_40대 (87)	24	27	15	9	15	0	9	100
	남성_50대 (98)	27	36	14	6	4	2	11	100
	여성_50대 (97)	32	17	16	9	6	2	17	100
	남성_60대 (87)	24	37	19	7	4	1	8	100
	여성_60대 (90)	21	45	6	11	3	1	13	100
	남성_70세 이상 (62)	21	41	9	6	6	3	13	100
	여성_70세 이상 (87)	18	44	3	2	8	3	22	100

질문: 앞으로 우리 사회의 남녀갈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2.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젠더갈등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비슷하게 피해를 본다, 53% 동일 성별에서 더 피해를 본다는 인식 높아… 여성은 여성이 더, 남성은 남성이 더 피해 봐

젠더갈등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고, 향후 전망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2030세대, 청년 및 자녀 세대에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53%는 남녀갈등으로 인해 남성과 여성이 모두 '비슷하게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다. 젠더갈등이 남녀 모두에게 큰 피로감을 준다는 것이다. 성별 간 차이만 살펴보면 '여성이 더 피해를 본다' 23%로 '남성이 더 피해를 본다(18%)'는 인식보다 5%포인트 높다. 전년도에는 남녀 피해 격차가 9%포인트였고, 이번 조사에서 그 격차가 소폭 감소했다. '둘 다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3%로 매우 낮고, '잘 모르겠다'는 3%이다.

성별을 불문하고 젠더갈등으로 '남녀 모두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주류인 가운데, 남성의 56% 그리고 여성의 51%가 이에 공감한다. '여성이 더 피해'·'남성이 더 피해' 두 가지 응답만 비교를 한다면, 나와 동일한 성별이 상대 성별에 비해 더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높다. 여성은 여성이 더 피해를 보고 있고(여성 더 피해 36%, 남성 더 피해 9%), 남성은 남성이 더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남성 더 피해 30%, 여성 더 피해 6%).

앞서 2030세대 남녀는 현재 젠더갈등이 심각하고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는, 암울한 평가를 내린다. 이를 보여주듯이 18~29세 여성은 여성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동년배 남성은 작년 대비 남성 스스로가 피해자라는 인식이 강화되었다. 성별과 연령을 교차해서 살펴보면 대부분 '둘 다 비슷하게 피해를 본다'는 입장에 무게가 실리나, 유일하게 18~29세 여성(54%)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절반을 넘는다. 18~29세 남성은 '둘 다 비슷하게 피해를 본다'는 입장이 59%로 다수를 차지하나, 작년 대비 '남성이 더 피해를 본다'는 인식은 더 강화되었다(2024년 19%→2025년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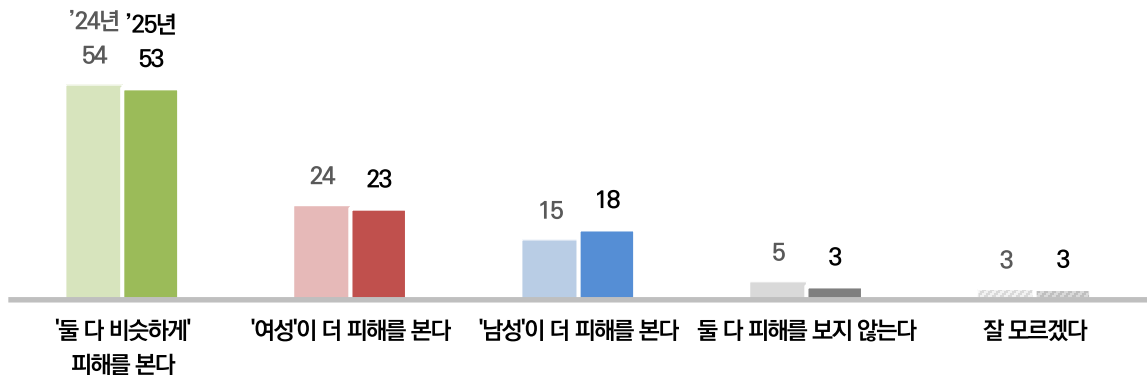
동일한 성별 내에서 세대에 따른 인식 차이도 존재한다. 30대, 60대 남성은 작년에 이어 '남녀 모두 비슷하게 피해를 본다'는 입장이 10%포인트 이상 증가했고, 50대 남성은 12%포인트 감소했다.

정리하면, 성별이나 세대에 따른 피해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인식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남녀갈등은 어느 한 쪽의 성별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모두 피해를 보는 입장이라는 인식이다.

### 젠더갈등으로 '남녀가 비슷하게 피해를 본다', 53%

'여성(23%)이 남성(18%)보다 더 피해를 본다' 5%포인트 높아… 작년에 비해 남녀 피해 격차 소폭 줄어

(단위 : %)



질문: 남녀갈등으로 인해 누가 더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4. 2. 23. ~ 26. // 2025. 2.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젠더갈등으로 인해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주류  
나와 동일한 성별이 더 피해를 입는다는 인식

(단위 : %)

		둘 다 비슷하게 피해를 본다			여성이 더 피해를 본다			남성이 더 피해를 본다		
		'24년	'25년	차이(%p) (25년-'24년)	'24년	'25년	차이(%p) (25년-'24년)	'24년	'25년	차이(%p) (25년-'24년)
전체		54	53	-1	24	23	-1	15	18	3
성별	남성	56	56	0	12	9	-3	24	30	+6
	여성	53	51	-2	36	36	0	6	6	0
연령	18-29세	53	49	-4	29	28	-1	11	18	+7
	30대	53	58	+5	23	17	-6	19	20	+1
	40대	57	54	-3	21	21	-	16	18	+2
	50대	56	50	-6	20	25	+5	14	17	+3
	60대	50	56	+6	26	24	-2	15	14	-1
	70세 이상	55	51	-4	24	22	-2	16	20	+4
	성별x연령									
남성_18-29세		64	59	-5	6	4	-2	19	35	+16
여성_18-29세		41	39	-2	54	54	0	3	0	-3
남성_30대		49	60	+11	11	1	-10	36	30	-6
여성_30대		57	56	-1	36	33	-3	1	8	+7
남성_40대		55	55	0	10	8	-2	28	34	+6
여성_40대		60	53	-7	32	34	+2	4	2	-2
남성_50대		60	48	-12	8	15	+7	20	28	+8
여성_50대		51	53	+2	33	36	+3	8	6	-2
남성_60대		46	56	+10	24	17	-7	20	23	+3
여성_60대		55	57	+2	28	30	+2	9	5	-4
남성_70세 이상		60	61	+1	13	8	-5	22	27	+5
여성_70세 이상		51	45	-6	31	32	+1	12	15	+3

질문: 남녀갈등으로 인해 누가 더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4. 2. 23. ~ 26. // 2025. 2.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이번 조사 결과,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젠더갈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2030세대에서 그 인식이 두드러진다. 남녀 모두 젠더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함께 경험하고 있다고 느끼며, 특정 성별만의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현재와 미래 모두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2030세대의 시선을 고려할 때, 젠더갈등 해소를 위한 성별 간 공감과 이해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2 젠더차별, 실제로도 심각한가?

### 직장 내 ‘여성차별’ 심각성 인식은 44%, 조사 이래 처음으로 절반 아래로 감소 직장·가정·학교에서 발생하는 ‘남성차별’ 심각하다는 인식은 20% 내외

젠더갈등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특정 성별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거나 자신의 성별이 더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갈등의 불씨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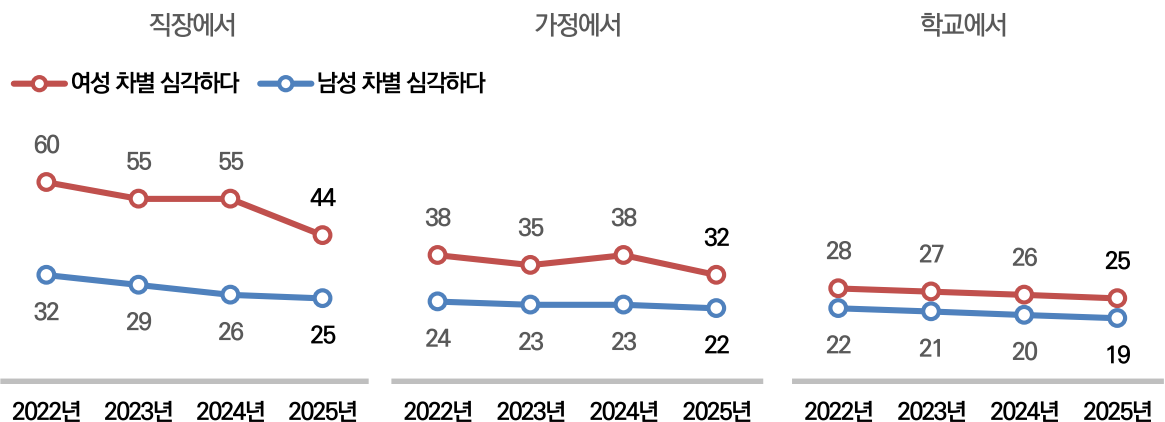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직장·가정·학교에서의 성차별 인식 변화를 살펴 보았다. 먼저 여성의 경우, 직장 내 여성차별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올해 44%로 가정(32%), 학교(25%)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직장 내 여성차별에 대한 인식은 전년 대비 11%포인트 감소해, 조사 이래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2024년 55% → 2025년 44%). 가정 내 여성차별 인식도 38%에서 32%로 6%포인트 감소했으며, 학교에서는 지난 4년간 큰 변동 없이 20%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남성차별이 심각하다는 인식은 이번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20% 내외 수준에 머무른다. 직장(25%), 가정(22%), 학교(19%)에서의 차별 인식은 전년대와 유사한 수준이다. 2022년 첫 조사에서 직장 내 남성차별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32%였고, 올해 25%로 점진적인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남녀를 비교해보면, 매년 직장·가정·학교 모든 영역에서 여성차별이 남성차별보다 더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속된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직장, 가정 내 여성차별 심각성 인식이 감소하면서 남녀 간 격차가 좁혀졌다.

전체 응답자 중 절반 가량은 현재 젠더갈등이 심각하고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인식이나(갈등 유지 29%+갈등 심화 21%), 직장과 가정 등 주요 영역에서 차별 인식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갈등이 완화될 여지도 존재한다. 이러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성별 간 공감과 이해를 높이는 사회적 노력을 병행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직장 내 ‘여성차별’ 심각성 인식은 44%, 조사 이래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 직장·가정·학교에서 발생하는 ‘남성차별’ 심각하다는 인식은 20% 내외

(단위 : %)



질문: 다음 상황에서 여성/남성에 대한 차별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심각하다(매우+대체로) 응답 제시함.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2년부터 매년 2월 조사(총 4회)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직장, 가정, 학교에서 남녀 모두 본인 성별이 겪는 고충 있어 남성은 여성, 여성은 남성의 직장 내 성차별 문제 심각하다는 데 일부 공감해

성별과 연령을 교차해서 상황별 성차별 심각성 인식을 자세히 살펴 보았다. 우선, 50대 이하 여성은 직장 내 여성차별이 심각하다는 데 절반 이상이 공감한다. 특히 사회 초년생에 속하는 18-29세 여성(83%)과 경력 안정기에 진입한 30대 여성(78%) 중에서 80% 가량이 직장 내 여성차별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전체 응답자의 44%가 직장 내 여성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2030세대 여성 본인은 자신과 같은 성별이 직장에서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는 인식이 높다. 뿐만 아니라 30~60대 남성 중 30% 이상은 여성의 직장 내 어려움에 일부 공감하고 있다.

한편, 40대 이하 남성 중에서 직장 내 남성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30% 이상이다. 특히 30대 남성의 차별 심각성 인식이 46%로 가장 높다. 30대 여성 3명 중 1명(32%)도 직장 내 남성차별, 남성의 어려움에 공감한다.

18-29세 여성 중 직장 내 여성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83%인 반면, 남성차별이 심각하다는 인식은 25%에 그친다. 18-29세 남성은 남성차별 심각성에 34%가 동의하는 반면, 34%의 절반 수준인 17%만이 여성차별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3040대 세대가 상대의 고충과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 초년생 세대에서도 상대 성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가정’ 내 차별 심각성을 살펴보면, 40대 이하 여성에서 여성차별 심각성과 남성차별 심각성 사이의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벌어진다. 특히 2030세대 여성 10명 중 6명 이상은 가정 내 여성차별이 심각하다는 인식이다(18-29세 여성 71%, 30대 여성 65%). 3040세대 남성 10명 중 3-4명 가량은 가정 내 남성차별이 심각하다는 인식이다(30대 남성 37%, 40대 남성 28%). 이를 통해 가정 내 성차별이 어느 한 쪽 성별에게만 일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다.

‘학교’에서는 18-29세 여성(61%)과 30대 여성(46%)이 여성차별이 심각하다는 인식이다. 동일한 연령대의 18-29세 남성(28%), 30대 남성(27%)도 30% 가량이 학교에서 남성차별이 심각하다는 인식이다.

정리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직장, 가정, 학교에서 각자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일부 세대에서는 상대의 고충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성 대결 구도가 아닌, 상호 이해와 공감의 가능성을 기반으로 젠더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직장 내 여성차별 심각성 인식, 전년 대비 10%포인트 가량 감소

(단위 : %)

'여성차별 심각하다' 응답		직장			가정			학교		
		'24년	'25년	차이(%p) (25년-'24년)	'24년	'25년	차이(%p) (25년-'24년)	'24년	'25년	차이(%p) (25년-'24년)
전체		55	44	-11	38	32	-6	26	25	-1
성별	남성	43	30	-13	27	21	-6	23	18	-5
	여성	67	57	-10	49	42	-7	28	31	+3
연령	18-29세	57	49	-8	47	44	-3	31	35	+4
	30대	67	56	-11	54	46	-8	34	31	-3
	40대	59	49	-10	42	35	-7	23	24	+1
	50대	51	42	-9	34	29	-5	24	23	-1
	60대	47	37	-10	25	22	-3	19	20	+1
	70세 이상	50	32	-18	27	17	-10	24	17	-7

남성차별 심각성 인식, 작년과 큰 차이 없는 수준으로 유지

(단위 : %)

'남성차별 심각하다' 응답		직장			가정			학교		
		'24년	'25년	차이(%p) (25년-'24년)	'24년	'25년	차이(%p) (25년-'24년)	'24년	'25년	차이(%p) (25년-'24년)
전체		26	25	-1	23	22	-1	20	19	-1
성별	남성	29	28	-1	27	23	-4	27	22	-5
	여성	24	22	-2	18	20	+2	13	15	+2
연령	18-29세	25	30	+5	22	19	-3	21	21	0
	30대	32	39	+7	30	30	0	28	22	-6
	40대	33	26	-7	27	24	-3	24	20	-4
	50대	28	19	-9	23	22	-1	19	15	-4
	60대	17	18	+1	17	15	-2	12	19	+7
	70세 이상	22	19	-3	18	19	+1	17	15	-2

질문: 다음 상황에서 여성/남성에 대한 차별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심각하다(매우+대체로) 응답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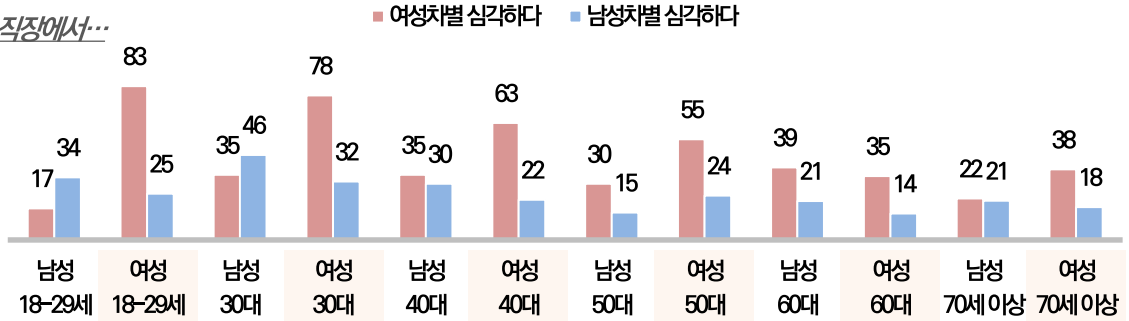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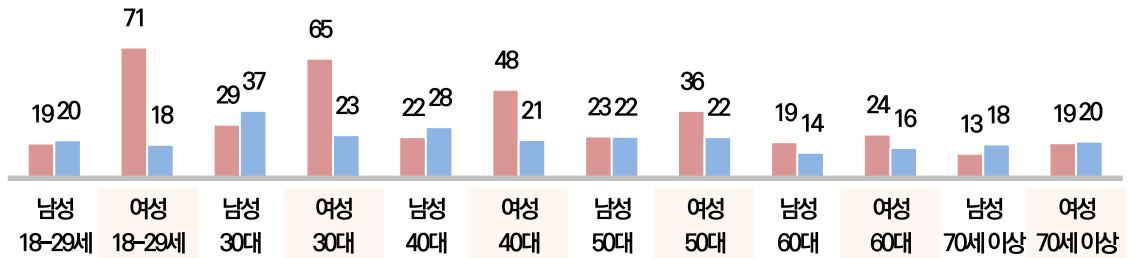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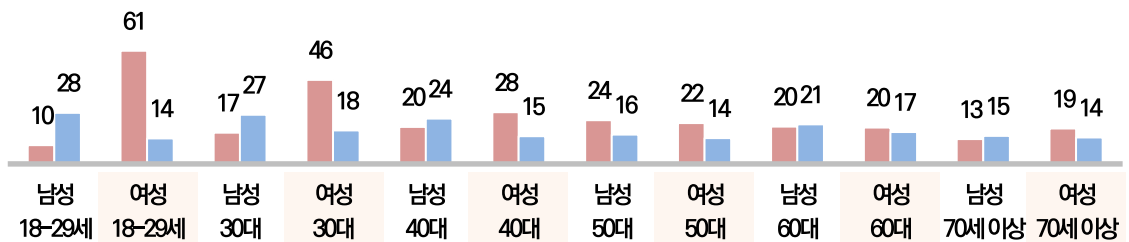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4. 2. 23. ~ 26. // 2025. 2.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030세대 여성, 직장·가정·학교에서 '여성차별 심각하다'는 의견 다수  
3040세대 남성, 직장 내 여성차별 심각하다는 데 35%가 동의  
모든 세대 남성, 상황별 남성차별 심각성 절반 넘지 않아

(단위 : %)

직장에서...가정에서...학교에서...

질문: 다음 상황에서 여성/남성에 대한 차별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심각하다(매우+대체로) 응답 제시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2.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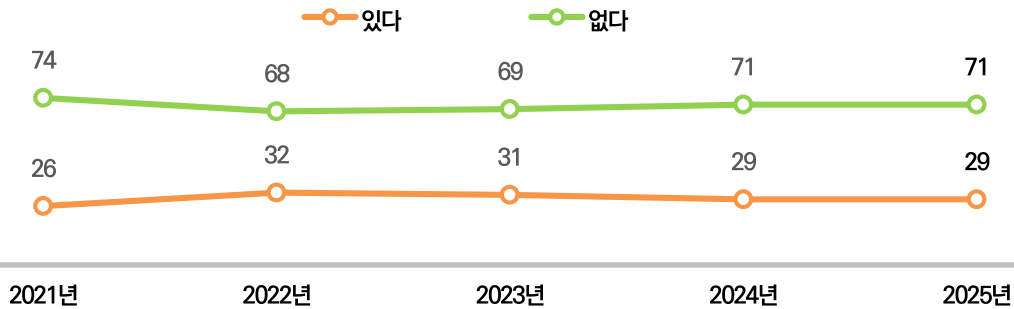
## 2021년부터 2025년 까지, 최근 1년 간 성차별 받은 적 있다 '4명 중 1명 이상'

2021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성차별 경험은 5년간, 30% 내외 수준을 유지했고 매년 4명 중 1명 이상이 '최근 1년 간 성차별을 받은 적 있다'고 답했다. 작년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29%가 성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여성(32%)은 남성(26%)보다 최근 1년간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6%포인트 높다. 연령이 낮을수록 성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높는데, 18-29세(49%) 중 절반이 차별을 겪었다고 답했다. 2030세대 여성은 동년배 남성 대비 성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높다. 18-29세 여성 4명 중 3명은 지난 1년간 성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는 작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2024년 52%→2025년 65%). 30대 여성의 성차별 경험은 작년 52%에서 올해 40%로 12%포인트 감소했으나, 여전히 남성의 성차별 경험 비율보다는 높다. 2030세대 여성의 성차별 경험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가운데, 이러한 경험이 직장을 비롯한 일상 속에서 여성의 성차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 2021년부터 지난 5년간, 4명 중 1명 이상은 인간관계 속에서 '성차별 받은 경험 있어'

(단위 : %)



### 18-29세 여성의 4명 중 3명은 지난 1년간 '성차별 받은 적 있어'… 전년 대비 13%포인트 증가

(단위 : %)

	성차별 받은 경험 '있다'		
	'24년	'25년	차이(%p) (25년-24년)
전체	29	29	0
성별			
남성	23	26	+3
여성	35	32	-3
연령			
18-29세	44	49	+5
30대	37	35	-2
40대	29	29	0
50대	30	28	-2
60대	16	18	+2
70세 이상	19	17	-2

성별 x 연령	성차별 받은 경험 '있다'		
	'24년	'25년	차이(%p) (25년-24년)
전체	29	29	0
남성_18-29세	37	34	-3
여성_18-29세	52	65	+13
남성_30대	23	30	+7
여성_30대	52	40	-12
남성_40대	25	29	+4
여성_40대	34	30	-4
남성_50대	21	23	+2
여성_50대	38	32	-6
남성_60대	14	24	+10
여성_60대	19	13	-6
남성_70세 이상	19	16	-3
여성_70세 이상	18	18	0

질문: 최근 1년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차별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1년부터 매년 2월 조사(총 5회)

## 10명 중 5명 이상, 지난 1년간 '직장 내 동료·상사(57%)' 관계에서 성차별 받은 적 있어 가족이나 친지 관계에서 경험한 성차별 경험은 하락

최근 1년간, 인간관계에서 성차별적인 경험을 한 적 있는 293명은 어떤 관계에서 성차별을 받았을까? 10명 중 5명 이상은 '직장 내 동료·상사와의 관계(57%)'에서 성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21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5년 연속 성차별 경험이 가장 많은 관계이다. 이어서 '이웃, 친구관계(35%)', '가족·친지(34%)' 관계에서 성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학교나 학원 내 교사와의 관계(14%)', '기타 관계(9%)'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0% 내외로 많지 않다. 성차별 경험은 직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며, 이는 직장이 성차별 문제의 핵심적인 발생 공간임을 시사한다. 직장 내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다는 점에서, 직장 환경 개선이 성차별 문제 해소에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비율도 30%를 상회한다. 직장을 비롯해 우리 일상 곳곳에서 성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장 내 성차별 경험은 5년 연속 가장 높고, 5~60% 선을 유지한다. 이웃이나 친구 관계에서 차별을 경험한 사람은 작년 대비 3%포인트 감소했으나 큰 차이는 없고 30% 선을 유지하고 있다. 가족이나 친지 관계에서는 작년까지 40% 대를 유지하다 올해 15%포인트 감소해, 조사 이래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다. 학교나 학원, 기타 관계에서도 5년간 큰 변동 없는 수준을 유지한다.

### 성차별 경험, 직장 내 관계(57%) > 이웃·친구 관계(35%) > 가족관계(34%) 순 가족이나 친지 관계에서 경험한 성차별은 작년 대비 15%포인트 감소

(단위 : %)

...에서 성차별적 경험 한 적 있다

직장 내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이웃, 친구들과의 관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가족이나 친지와의 관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학교나 학원 내 교사와의 관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기타 관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질문: 최근 1년 사이에 성차별 경험이 있다면, 어떠한 관계에서 성차별적인 경험을 하셨는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응답자 수: 최근 1년간 인간관계 속에서 성차별 경험한 적 있는 사람 (2021년 260명, 2022년 321명, 2023년 313명, 2024년 291명, 2025년 293명)

조사기간: 2021년부터 매년 2월 조사(총 5회)

## 최근 1년간 남녀 모두 직장에서 성차별 경험 있어, 절반 이상 남성은 이웃·친구 관계에서, 여성은 가족·친지 관계에서 성차별 받은 적 더 많아

직장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가장 높은 가운데, 남성은 59%, 여성은 55%가 직장에서 성차별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남녀 모두 절반 이상이 직장 내 차별을 경험한 것이다. 이웃이나 친구 관계에서는 남성(45%)이 여성(27%)보다, 가족이나 친지 관계에서는 여성(43%)이 남성(21%)보다 성차별적인 경험을 더 많이 했다는 인식이다. 남녀 모두 가족이나 친지 관계에서 성차별을 겪은 경험이 전년 대비 각각 18%포인트, 13%포인트 감소했으나 여전히 여성 5명 중 2명 이상은 차별을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 직장 내 성차별 경험, 남녀 모두 50% 상회

가족·친지관계에서는 여성이, 이웃·친구관계에서는 남성의 성차별 경험이 20%포인트 가량 높아

(단위 : %, %p)

'최근 1년간 성차별 경험 있는' 응답자	직장 내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			이웃,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이나 친지와의 관계			학교나 학원 내 교사와의 관계		
	'24년	'25년	차이 (25년- '24년)	'24년	'25년	차이 (25년- '24년)	'24년	'25년	차이 (25년- '24년)	'24년	'25년	차이 (25년- '24년)
전체	54	57	+3	38	35	-3	49	34	-15	16	14	-2
성별												
남성	60	59	-1	46	45	-1	39	21	-18	19	15	-4
여성	51	55	+4	33	27	-6	56	43	-13	14	13	-1

질문: 최근 1년 사이에 성차별 경험이 있다면, 어떠한 관계에서 성차별적인 경험을 하셨는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응답자 수: 최근 1년간 인간관계 속에서 성차별 경험한 적 있는 사람(2024년 291명, 2025년 293명)

조사기간: 2024. 2. 23. ~ 26. // 2025. 2.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남성과 여성 모두 직장·가정·학교 등 다양한 일상 영역에서 각자의 고충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직장에서의 성차별 심각성 인식이 가장 높다. 이번 조사를 포함해 5년간 4명 중 1명은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이 가운데 여성은 직장에서, 남성은 친구·이웃 관계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높다. 이번 조사에서 각 성별이 자신의 어려움을 인식하는 동시에, 상대 성별의 고충에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젠더갈등을 단순한 대립의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남녀 간 상호 공감을 더욱 확장하고, 사회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 젠더갈등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인식 변화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4년 12월 기준 전국 약 96만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41,977명, 조사참여 1,519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2.4%, 참여대비 65.8%)
조사일시	• 2025년 2월 21일 ~ 2월 24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